

□성명서□

**FTA와 코로나19로 인해 낙농기반 붕괴 일로(一路),
2021년도 낙농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원유수급 문제는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공급중단이 원인임이 자명하다. 올해 1~9월 누적 유제품총소비량(원유환산)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나 유제품수입량은 전년대비 6.4%나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우유 공급중단 물량(약 460톤/일, 1일 전국생산량의 약 8%)을 시중에서 소진시키기 위해 업체 간 출혈경쟁이 만연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중소(中小)규모 유업체의 잉여량과 손실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낙농진흥회의 내년도 계약공급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451천톤으로 지난 10년간(2010~2019) 평균 계약공급량(469천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식품부는 현재의 원유수급 문제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10.7일)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농식품부 종합국감(10.23일)에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 여파로 낙농진흥회와 일부 유업체가 낙농가의 생산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증액을 포함한 정부대책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공급과잉 상태이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아닌 원유생산량 증가에 있다며 낙농가의 생산감축만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동·하절기 이상기후에 따라 올해 전국 원유생산량 예측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209만톤 수준으로 예년수준(2010~2019)인 205~210만톤 범위 내에 있다. 구제역에 따라 원유가 부족했던 2012년 원유생산량(21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올해 낙농진흥회 생산량 예측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496천톤으로 지난 10년간(2010~2019) 낙농진흥회 평균생산량(497천톤)을 밑돌고 있다.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나 유업체가 부여한 쿼터 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의 책임을 낙농가에게만 돌리는 것에 대해 낙농가들은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현 수급 불안의 본질을 낙농가에게 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다. 문제는 낙농가의 생산감축은 수입량 증가를 부추겨 낙농기반을 더욱 붕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낙농가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낙농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용우유의 공급중단에 따른 수급완화대책 사업으로 학교급식용우유를 탈지분유, 버터 등을 위한 가공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가격차를 지원하는 등 지난 3월 총액 150억엔의 낙농예산을 긴급투입 하였다.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중단물량을 시중과 격리하여 낙농가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막은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당시 시판우유가 부족하자 학교우유가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유업체와 협약을 통해 학교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당시 원유환산으로 100만톤이 넘는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긴급 배정한 바 있다. 작금의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이고, 향후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체결한 FTA 때문에 유제품 수입이 증가되어 국산우유자급률은 지난 10년 사이 21%p 하락한 48.5%(2019년 기준) 수준이며, 낙농가수는 지난 10년 사이 26%나 감소하는 등 낙농기반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근본문제는 지난 2010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한·EU FTA 낙농대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20만톤,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와 같은 186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 역시 올해와 같은 150억원만을 편성하였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FTA와 코로나19로 인한 낙농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 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축산발전기금)의 약 40%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상상력 부재를 드러낸 정부의 민낯이다.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식량인 우유의 공급기반 붕괴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데, 정책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낙농가·낙농업계 만의 불행이 아닌 전(全)국가적인 불행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2020. 11. 9(월)

한국낙농육우협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